Architecture

제작 의도

Architecture(이하 아키텍처)는 간단 명료한 디자인에서 여러가지 특이점을 줄 수 있는 글씨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기획하였다. 글씨의 기본 바탕은 딱딱한 느낌의 탈네모꼴 고딕 서체에서 시작하며, 이는 독창적이면서도 쉽게 모음과 자음을 조립하여 모든 한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. 그런 다음 글씨를 관통하는 45도 각도의 직선을 추가하여 폰트만의 개성을 추가했다. 이 직선은 한국적인 요소를 함축한 요소로서 창호문의 장식, 앙부일구의 침, 한옥의 지붕 등 한국의 전통적인 디자인에 존재하는 날카로움을 상징한다. 또한 이 직선은 그저 상징적인 요소로서만 작동하는게 아니라 글자의 빈공간을 채워 안정적으로 만드는 역할도 함께한다. "아키텍처"라는 이름도 이런 디자인에서 받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.